

<2016년 12월 21일 수요일말씀>

뜻이 있어야 되고 좋아야 된다

본 문 요한복음 4장 34절

『나의 양식은 <나를 보내신 이의 뜻>을 행하며
<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>이니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‘<뜻>이 있어야 된다. <좋아야> 된다.’에 대해
말씀해 주겠습니다.

<잠언>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◎ <잠언>은 ‘삼위일체와의 대화의 말씀’입니다.
고로 <한마디 잠언>은 ‘운명’을 좌우하기도 합니다.
그러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.

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<뜻>이 있으면, ‘먼 것’ 이 상관없다.

◆ 생각이 있고 좋으면, ‘멀고 가까운 것’ 이 상관없다.

◆ 좋으면, 먼 길도 간다.

◎ 계속해서 잠언을 쭉~ 들어 보면,
앞에 말한 세 가지 잠언이 쭉~ 이해가 될 것입니다.

◆ 좋아도 처음 대하면, 눈에도 마음에도 확~ 안 들어오는 것이다.

◆ 살아야 정들어 좋아진다.

◆ 시골의 집이나 별장을 좋아하면,
도시의 아파트를 두고 찾아서 가야 된다.

◆ 도시를 좋아하면, 아파트라도 가야 된다.

◆ 핵 보고 간다. <마음에서 좋아하는 것>이 ‘핵’ 이다.

◆ <하나님의 것>이니, ‘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’ 다.

◆ <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>이 ‘뜻’ 이다.

◆ <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>은 ‘뜻’ 이 아니다.

◆ <하나님의 뜻대로>란, ‘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’ 다.
곧 ‘하나님의 계획’ 이다.

◆ <뜻 있는 데>로 가야 ‘형통’ 한다.

◆ 월명동은 멀고 먼 시골인데도 <뜻>이 있으니,
가서 ‘자연성전’ 을 만들어서 살게 되었다.

◆ 월명동은 <뜻>이 있다.

<하나님의 계획>과 <목적>과 <생각>이
전에도 있었고, 현재에도 있고, 미래에도 있는 곳이다.

◆ 선생이 월명동에 살다가 서울로 시대 복음을 전하러 갈 때,
처음에는 월명동을 버리고 갔다.

그러다 그 후에 월명동에 ‘성전’ 을 세우려고,
300리나 멀리 떨어진 시골로 다시 왔다.

이것은 ‘하나님의 뜻’ 이지,
사람들은 생각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다.

◆ 시골이 싫어서 떠났는데, 월명동으로 다시 왔다.
사람이 사는 곳도 아닌데, 사람들이 와야만 하는 곳이었다.

이런 곳에 ‘복음의 핵심지’ 를 만든다는 것은
<사람의 생각과 뜻>으로는 아무리 따져 봐도 ‘좋은 뜻’ 이 없었다.

그런데 <하나님>은 “뜻이 있는 곳이다.” 하셨다.

사람들은 말하기를

“교회는 서울에 두고, 시골 월명동은 수련회 때 쓰면 된다.

이곳을 하나의 수련 장소로 쓰자.” 했다.

역시 <사람>은 ‘사람의 생각 외’에는 더 생각하지 못했다.

오직 하나님만 ‘뜻’을 두고 행하셨다.

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었다.

- ◆ 월명동은 농토까지 모두 풀밭이 되어
주위의 환경과 경치가 좋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.

단지, ‘흙벽돌집 하나뿐’이었다.

고작 ‘집터 200평뿐’이었다.

그러니 서울에서 다시 와야 될 희망은 하나도 없었고,
단지 고향 집에 가끔 와서 쉬는 장소로 쓰는 것 하나뿐이었다.

가시덤불에 냇가도 없고, 웅달샘 하나뿐이었다.

그나마 논 구석에 있어서 흙탕물이 들어가는 샘물이었다.

나무도 없는 산이 월명동을 둘러싸고 있었다.

이러니 <사람의 생각과 뜻>이 없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>만 있었던 곳이었다.

그러니 여기 살던 사람들이 모두 이곳을 떠난 것이다.

그러나 <하나님의 뜻>이 있으니 개발하기 시작했다.

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씩 도시에서 10명, 20명, 50명씩 찾아왔다

결국 <하나님의 뜻>이 있으니,

하나님의 궁 ‘자연성전’을 만들게 되었다.

<하나님의 뜻>이 가니, 개발하고 점점 좋아졌다.

산만 그대로 놓고, 개발하여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었다.

- ◆ <사람>도 ‘하나님의 뜻’ 이 있어 만들면,
월명동 자연성전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자가 된다.
- ◆ 월명동은 대한민국 고을 중 작은 고을일지라도
절대 ‘작지 않은 마을’ 이 되었다.

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‘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’ 이 되었다.
- ◆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자도
<하나님의 뜻>이 있어 만들면, ‘큰 자’ 가 된다.

사사도 되고, 선지자도 되고, 메시아도 된다.
- ◆ <뜻>이 없으면, 잘 만들어도 별로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뜻도 있어야 되지만, 좋아해야 된다.
- ◆ 가령 ‘좋아하지 않는 곳’ 에 집을 잘 만들어 왔다 하자.
거기에 살겠냐.
살다가도 팔거나, 안 팔리면 사용하지 않고 떠난다.
- ◆ 사람도 그렇다.
좋아하지 않으면, 그 사람이 싫어서 떠나게 된다.
- ◆ <뜻 있는 곳>도 좋아해야 살게 된다.
- ◆ 좋아하지 않으면, <뜻이 있는 곳>이라도 못 산다.

◆ <뜻 있는 사람>도 좋아하지 않으면, 예쁘나 멋있으나 같이 못 산다.

◆ 내가 <지구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>이 ‘월명동’ 이다.
하나님이 내게 ‘뜻’ 을 이루셨으니 그러하다.

◆ 하나님은 <내가 좋아하는 곳>에다 ‘내가 좋아하는 것들’ 을
모두 붙여 놓으셨고 존재하게 해 놓으셨다.

여러 산과 바위 절벽 대둔산을 월명동에 붙여 놓으셨고,
그 안에 대길작 형상석과
신비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들이 존재하게 하셨다.

또한 시골 인가에서 떨어진 곳, 공기 좋은 곳,
높은 곳, 조용한 곳에 자리 잡게 하셨다.

◆ 존재물들을 <다> 좋아하면, ‘종일’ 기쁘고 ‘매일’ 기쁘다.

◆ 월명동도, 월명동에 있는 존재물인 나무, 돌, 형상석,
조경, 산, 물, 운동장, 잔디밭, 건물 등을 <다> 좋아하는 자는
그것들을 ‘볼 때마다, 쓸 때마다’ 기쁘다.

◆ 하나님께 말하기를, ‘돌로 자연성전을 만든 것’ 을 보니,
하나님도 나같이 ‘돌’ 을 좋아하신다고 했다.

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내가 <돌>을 창조했으니 좋아한다.

<내가 창조한 것들>은 다 좋아하니, 다 좋고 기쁘다.

너희도 항상 ‘나의 창조물’ 을 보고 기뻐하며 살아라.

또한 너희도 ‘제2의 창조’ 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서
매일 보고 쓰고 기뻐하며 살아라.” 하셨다.

- ◆ 하나님께 <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>은 얼마나 좋아하시느냐고 물으니,
하나님은 “그곳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는다.” 하셨다.

그때 깨달아지기를

‘그곳에 <자연성전 하나님의 궁>을 짓고,
지상에서 ‘육신’ 을 쓰고 사시는구나.’ 했다.

그러니 모두 <하나님의 뜻 있는 곳>에서 떠나지 말아라.

- ◆ 뜻이 있어서 좋아하면,
사랑하는 자와 일체 되어 떨어지지 않는다.
- ◆ <하나님이 사랑하는 자>가 있으면,
그를 ‘모터’ 로 삼고 ‘뜻 있게’ 돌리신다.
- ◆ 하나님은 <사랑하는 자>에게는 ‘뜻’ 을 말씀해 주고 행하신다.
나머지에게는 ‘비밀’ 로 하고 행하신다.
- ◆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, 떨어지게 된다.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좋아하고 사랑해야 떨어지지 않는다.
- ◆ <삼위일체>를 좋아하고 사랑해야
<삼위일체가 좋아하시는 것>을 차지하고 쓰게 된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속을 시원하게 해 드려야 되겠다고 새벽마다 기도하니,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
“깨달아야 속이 시원하고, 행해야 속이 시원하다.” 하셨다.
- ◆ 시대마다 <하나님의 뜻>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,
<하나님의 뜻>을 펴 오지 못한 것이다.
- ◆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오면, ‘하나님의 뜻’을 깨닫고 실천하여
<새 역사 하나님의 뜻, 휴거 역사>를 편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은 <때>가 오면 주신다.

◎ 때가 오면 주신다.

이 잠언이 이해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.

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

- ◆ <화면> 여름에 더울 때 등산을 하는데
 웅달샘과 씻는 장소가 모두 한자리에 웅기종기 모여 있으면,
 등산하는 중에 ‘한 번’ 밖에 못 쓴다.

고로 하나님은 <때>가 되면,

그때 가서 ‘그 위치에 따라 하나씩’ 주신다. <끝>

- ◆ 섭리역사를 펴면서도 -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마치 등산하다가 덥고 목이 탈 때마다

옹달샘과 폭포수 계곡이 나오듯 그리해 주셨다!

<전환>

- ◆ 이제 기도한다고, 잠언을 그만 받겠다고 하니,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“그만 받으려면, 나 건드리지 마.
나 건드리면, 자꾸 잠언이 쏟아져 나온다.” 하셨다

몰라서 답답해서 물었는데
그 말에 하나님이 답하시니, 그 <답>이 ‘잠언’ 이 되었다.

- ◆ 몰라서 답답하니 묻고 싶고,
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어 알게 되니,
잊지 않으려고 ‘잠언’ 으로 썼다.

어느 때는 잠언 100개, 150개를 쓴다.
그러면 여섯 시간씩 써야 되니, 힘들다.
그래서 궁금해도 안 물었다.

물어보면 ‘답’ 을 주시는데,
그것을 안 쓰니 금방 뇌에서 사라졌다.
나만 순간 답을 받고 끝나니, ‘남는 것’ 이 없었다.

잠언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라.

<잠언>은 ‘삼위일체와의 대화의 말씀’ 이다.

<비유의 말씀>이니, 풀어야 된다.

- ◆ 말씀이 끝나고

“휴~ 이제 하나님 가셨으니 좀 쉬자.” 했더니,
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.

“신은 가도 옆에 있다. 대화만 안 할 뿐이다.”

◆ 그래서 또 대화하며 이야기했다.

“신과 인간은 너무도 차이가 나니,
하나님의 삶은 참 재미있고 보람이 있겠습니다.

인간은 옆에 있다가 가면 안 보이고 멀어지는데
하나님은 가셔도 옆에 계시잖아요.

인간의 삶과 같지 않고, 신만이 누리는 삶이니 좋겠습니다.” 했다.
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다르게 사는 맛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아라.

다른 자들과 다르게 자기만 특별하게 사는 맛, 누리는 맛,
그것이 희열과 기쁨과 흥분과 절정의 인생의 맛 아니냐.

새 역사로 와서 신부의 삶을 사는
너희 자신에 대해 깨달아라.” 하셨다.

◎ 이렇게 대화하며 받은 잠언을 몇 개만 더 말씀해 주고, 마치겠습니다.

◆ 자기만 가지고 있는 맛, 자기만 누리는 맛이다.

◆ 전에도 성령님이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

“인간은 ‘구분해서 사는 맛’ 이다.” 했는데,

그 말씀이 같은 맥으로 연결되어 생각났다.

- ◆ 사람은 ‘구분해서 대하는 맛’ 이다.

아무에게나 할 말을 다 하면, 구분하지 않은 만큼 맛이 감한다.

열 가지 음식도 구분해서 먹으면 ‘열 가지 맛’ 을 다 느끼지만,
합쳐서 같이 먹으면 열 가지 맛도 ‘한 가지 맛’ 으로 끝난다.

사람도 ‘구분해서 대하는 것’ 이 지혜다.

이것이 ‘인생 삶의 맛’ 이다.

- ◆ 똑같이 대하면, ‘개성의 맛’ 이 없다.

- ◆ <비밀>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,
같은 차원에 있는 자들끼리만 말하고 즐겨야 된다.

아무에게나 다 이야기하면, 인생 맛없이 사는 자다.

- ◆ <사랑>도 다 똑같이 대하는 사랑이 아니다.
행한 대로 대해 주며 사랑하는 맛이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행위대로 대해 주며 사랑해 주신다.
그래야 ‘사랑의 맛’ 이 난다.

- ◆ 만물도 ‘개성대로 존재하며 대하는 맛’ 이다.

- ◆ 돼지에게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면,
돼지와 고구마를 같이 먹게 된다.

- ◆ 닭이나 개에게 농사지은 것을 어디 두고 먹는지 이야기를 안 해야,
재미있고 맛있게 산다.
- ◆ 구분하여 말하지 않는 자는
마치 ‘개를 황금 의자에 앉히는 자’ 와 같다.
- ◆ 구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화를 다 줬더니,
결국 버리고 가서 ‘보화에 묻은 흙’ 을 씻느라 땀을 뻘뻘 흘렸다.

◎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다 똑같이 받고, 다 똑같이 대해 주고, 다 똑같이 이야기하면
‘인생의 맛, 사랑의 맛’ 이 없습니다.

그래서 하나님도, 성령님도, 성자 주도
각 사람의 ‘행위’ 대로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.

새 역사로 온 여러분들이
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,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진정 깨닫고,
자기만 특별하고 다르게 사는 맛, 누리는 맛을 알고,
그 기쁨과 흥분과 절정의 인생의 맛을 알고
매일 ‘성령 충만’ 하여 살기를 축원합니다!

◎ 말씀 마쳤습니다.